

‘제2공항 반영과제’ 도민 목소리 담길까

도민 공청회 모두 무산... 의견 접수 1일 1건 그쳐 전문가·공무원 구성 TF 제시 반영과제 한정 우려 도민 참여 방안 마련 요구... 도 “적극 의견 수렴”

제주도민들에게 제주 제2공항 기본 계획 반영사업을 직접 묻기로 했지만 참여가 저조해 적극적인 홍보·참여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20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반영 과제 발굴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이날부터 제주도 홈페이지(www.jeju.go.kr)와 성산읍사무소에 설치된 특별지원사무소 내 소문센터에서 도민 의견을 받고 있다. 사업 목적은 오는 19일 국토교통부의 제2공항 기

본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와 맞물려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도민 의견을 모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과제 발굴 TF팀을 통해 기본계획 반영과제안을 마련하고 공개했다. 주요 내용은 ▷ 우선 반영 사항 ▷연계 국가 지원 사항 ▷연계 지역발전 사항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편입주민 지원 방안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방안 ▷현 제주공항과 제2공항

역할 분담 필요성 및 고려사항 ▷배후도시 관련 지원(안) ▷성산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 확충과 관련한 사업(안)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제주도가 반영과제를 공개한 지 23일째를 맞는 11일 현재까지 접수는 24건(온라인 7건(중복포함)·오프라인 17건)에 불과하다. 이는 ‘하루 1건’ 수준으로 제대로 홍보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혼인지를 결혼 메카로 만들어 달라 ▷토지 보상 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달라 ▷제주도청을 서귀포시로 이전해달라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주도가 지난달 23일과 이달 4일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에서 도민 대상 공청회를 두차례 개최했지만,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의 강력한

저지로 잇따라 무산돼 의견수렴을 진행하지 못했다.

문제는 반영과제가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된 TF팀에서 만든 만큼, 행정적인 지원 발굴에만 한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평소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과제는 전 도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주문했던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의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24건이 적다고 할 수 없다. 내용이 중요하다. 반영과제 의견수렴 기간 이전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받아왔다”며 “공청회가 무산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아직 남은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제각각이던 ‘해녀상’ 표준모델 나왔다

그동안 도내·외 곳곳에 통일 안된 해녀상 설치 고유성 변질 우려 지적 도, 표준모델 최종 확정 전통 해녀의 원형 살려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양한 제주해녀상의 통일된 디자인을 위해 제주해녀상 표준모델(사진)을 개발했다.

제주도는 표준모델 개발을 위해 지난 3월부터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했으며 조각과 미술, 해녀문화 등 각 분야 전문가 중심의 표준모델 개발 자문회의를 구성해 표준모델(안)을 만들었다. 이후 제주도 해녀문화전승보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4월 제주해녀상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개발된 제주해녀상 표준모델은 30~40대의 진취적 얼굴 모습, 전통 물소중이 복장, 테왁망사리와 세논의 형태 등 전통 해녀의 원형을 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해녀상 표준모델은 향후 공공기관의 해녀상 설치시 사용하며, 민간 설치시에도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 제주해녀상을 세계적 관광명소인 독일 로렐라이시와 부산 영도구에 설치할 예정이다.

독일 로렐라이시는 지난해 대평어촌계 해녀공헌단이 독일 로렐라이시에서 공헌한 것을 인연으로 제주해녀상 설치에 합의해 오는 11월 로렐라이 언덕에 제주해녀상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달말 제주해녀상 설치 예정인

부산 영도구는 1895년경에 제주해녀 바깥물집의 첫 기착지로 출항해녀역사가 이뤄진 장소이다.

제주해녀상은 그동안 민간중심으로 도내·외 곳곳에 설치됐으나 해녀상의 형태와 표정, 자세 등이 다양해 제주해녀의 고유성이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홍충희 제주도 해녀문화유산과장은 “제주해녀상 표준모델을 마련함으로써 해녀상 디자인에 대한 혼선을 막고, 제주해녀 고유의 모습을 국내·외에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대리기자 bigroad@ihalla.com

서귀포시-日 가시마시 14년째 우정

청소년 홈스테이로 교류

서귀포시 청소년들의 일본 자매도시 가시마시 청소년과의 교류가 14년째 이어지고 있다.

시는 관내 13개 중학교 18명이 지난 8~11일 3박4일간 자매도시인 가시마시를 방문해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행사를 통해 우정을 쌓았다고 11일 밝혔다.

교류 첫날 웰컴파티에선 호스트 패밀리와 만남, 상대국 언어나 영어로 자기소개 등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셋째 날에는 호스트패밀리와 함께 생활하며 가정문화, 예절 등 의식주를 체험하고 오노중학교를 방문해 학생들이 직접 편성한 국어·체육·영어·수학 수업에 참여하며 학교문화를 체험하고 우정을 쌓았다.

이번 교류행사 참가한 고윤지(서귀포여중) 학생은 “평소 일본문화와 애니메이션 등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 홈스테이 교류행사를 통해 일본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11월에는 가시마시 홈스테이 교류단이 3박4일 일정으로 서귀포시

를 방문해 홈스테이와 교류행사를 갖는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제주 첫 ‘청년통계’ 개발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청년들을 대상으로 ‘제주청년통계’ 2종(행정통계, 조사통계)을 개발한다고 11일 밝혔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통계자료 개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는 3년 주기로 작성할 계획이다. 청년정책에 대한 중요도와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청년 대상 통계는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도는 청년통계 개발을 위해 지난 4월 호남지방통계청과 청년통계개발 추진을 위한 실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12월까지 통계 개발 결과를 공표할 방침이다. 고대리기자

꼼꼼해지는 실태조사... 실습환경 나아지나

제주 이민호 군 사망사고 이후 제도 개선 연장선 조사 내용 담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 의결

2017년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 군 사고를 계기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제도의 개선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장실습 실태 조사의 구체적 항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1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직업교육훈련 관

련 실태조사에 현장실습 안전 및 사전교육 관련 항목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시행령의 일부개정령이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으로 직업훈련관련 실태 조사를 의무화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의 건설한 운영을 위해 매년 현장실습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조사결과를 반영해 현장실습에 관한 지도·감독을 하도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의결된 시행령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현장실습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이나 현장실습할 때 사전교육을 실시하는지 현황에 대한 부분, 현장실습 지원 체계가 구축되어 있는지 등을 실태조사를 하도록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부미현기자

김경미 의원 ‘깨알정책대상’ 수상

안전취약층 조례 제정으로

김경미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사)시민이 만드는 생활정책연구원 이 주관하는 ‘제2회 깨알정책대상’ 수상자로 11일 선정됐다.



해대상은 기초의원 2명, 광역의원 7명, 국회의원 4명, 기초자치단체장 1명을 포함해 총 14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김경미 의원은 올해 3월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취약계층 조례’를 제정해 안전취약계층이 응급상황 시 초기 대응 및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한 안전기구(경보시설, 소화시설, 피난기구)를 지원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다. 이 조례는 안전취약계층 유형별 및 거주형태 등을 분석해 신속한 대피로 확보 및 대피 훈련 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하나 된 화합축제! 100년 무진드리의 합성!!!

제10회 구업초등학교 총동창회 한마음축제

구업초등학교 총동창회 한마음 축제에 동문 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일 시 : 2019년 6월 16일(일) 10:00 (개회식 10:30)
- 장 소 : 모교 운동장 (우천시 체육관)
- 축제내용
 - 식전행사: 구업초등학교 댄스 동아리팀
 - 프로그램: 어린이, 청소년, 동문, 어르신 게임, 혼성 2인 3각 릴레이, 줄다리기
 - 공 연: 민요공연, 평양 민족예술단 공연
 - 경품추첨: 푸짐한 경품을 준비하였습니다.

상임부회장 임용범 011-696-1825
사무국장 성수열 010-7603-1226
사무차장 고병두 010-2994-0838

구업초등학교 총동창회 회장 변태엽

친환경 전통건축 [한옥에서의 건강한 삶]

선자연

이 실현합니다.

시공

- 전통건축(살림집, 사찰)
- 전원주택 시공 및 리모델링
- 전통 구들 시공
-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수리기술자] 직접 시공
- 전통건축 대목이 직접 시공참여 기술지도
- 나무, 흙, 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건축
- 제주 전통건축 양식 및 기후 반영한 설계 시공
- 품질 우선 시공, 합리적인 건축비

상담 : 010-5308-5796, 064-764-0488

전통한옥문화재사랑 선자연

문의번호 2007-GN1-26-0155

국제보청기프라자

무료청력검사, 휴일예약, 출장상담 환영

정부지원 최고 131만원

보상판매

27,000원 36개월 무이자 할부

- ☑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습니다.
- ☑ 이야기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습니다.
- ☑ 대화를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 ☑ 시끄러운 장소에서도 대화가 가능합니다.
- ☑ 소리가 왕왕 울리지 않고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길

● 제주은행 ● 한국병원

시외버스터미널 오라마을 ● 국제보청기(국제기2층)

한라체육관 ● 실내수영장

대표 임장완

직접수리 · 당일착용

국제보청기 ☎743-7175

제주시 서광로 190 (한국병원 건너편, 국제기2층)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주)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중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단독주택 전채 리모델링/지붕개량/옥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불박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 문의 ☎064.742.6234
☎010.7599.6234